

제7차 OECD/DAC 성평등네트워크 (GENDERNET) 회의 결과

김진영 한국국제협력단 정책연구실 대리

2009.6.10~12일간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제7차 OECD/DAC 성평등네트워크(GENDERNET) 회의가 개최되었다. 본 회의에서는 글로벌 금융 및 식량 위기가 여성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원조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성 인지적인 수원국 시스템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아울러, 제4차 DAC 고위급포럼(HLF)주최국으로서 한국은 HLF-4에서 개발에서의 성평등 이슈가 보다 심도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GENDERNET이 기여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1. 주요 결과

동 회의는 작금의 글로벌 금융 및 식량 위기가 여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를 통해 여성이 남성보다 경제적 위기(crisis)에 더 취약함을 재확인하였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개발협력파트너들 간의 공조와 개발협력 수행수준별로 각기 다른 전략의 적용이 필요함을 제기함.

아울러,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수원국 시스템 활용과 주인의식강화 노력시 성 인지적 관점(gender sensitive perspective)을 통합하고 수원국 시스템의 성 주류화를 위한 역량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성평등 증진과 여성권한강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고, 이를 위한 전략과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함.

한국 대표단은 2008년 가나 아크라에서 개최되었던 제 3차 DAC 고위급회담(High Level Forum)에서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성평등 증진 및 여성권한강화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이에 대한 개발협력파트너들의 이해를 도모하는데 있어 크게 기여한 GENDERNET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2011

년 서울에서 개최될 제 4차 회담에서 심화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함.

현 GENDERNET 의장인 도로시 담크야에르(Dorthea DAMKJAER)가 퇴임하고 네덜란드의 이네크 반 드 폴(Ineke van de Pol)가 2010년 의장으로 취임하고 새로운 사무국이 발족함.

2. 상세 회의내용

가. DAC 고위급회의 논의 및 DAC Reflection group 권고사항

(위기 대응방안과 개발원조 통합의 중요성) 리차드 캐리 DAC 개발협력국장은 개발정책 협의체로서 DAC는 원조효과성 맥락에서 위기대응방안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 5.27~28일간 DAC 고위급회의에서 논의, 채택한 DAC 행동계획이 천명하는 바와 같이 위기관리를 개도국의 장기성장 및 MDG 달성에 통합하고 파리선언과 아크라행동계획에 접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함을 역설함. 특히, 위기상황대응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확보하고 공여국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함.

특히, 여전히 남녀차별이 팽배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이 만연하게 이루어지며 여성이 위기상황에 더 취약한 현실에서 지난 고위급회의가 MDG 3번 목표 달성과 성평등 증진 의제를 활발하게 논의한 것을 의미 깊게 생각한다면서 GENDERNET이 다양한 개발협력수행자들이 대책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함.

(DAC 네트워크간 긴밀한 공조의 필요성) OECD는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평가단(Reflection group)을 형성하여 DAC의 개발협력사업 평가를 수행하며 개발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 대한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고자 함. 평가단은 MDG 달성과 파리선언의 맥락에서 주인의식 강화, 정책일관성, 결과중심의 사업수행을 위해 DAC 네트워크 및 부속기관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고, 특히 성평등 의제는 원조효과작업반(WP-EFF) 등 다른 DAC 네트워크와의 공조와 정책협의를 통해 효과적으로 논의할 수 있음을 제시함.

- 일본은 DAC가 신흥공여국과 수원국, 민간기업과 시민사회 등 다양한 수행자들을 개발협력에 참여시키는 노력을 해야하며, 모범사례의 공유와 확산을 위해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사무국은 모범사례 확산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그 일환으로 개발에서의 성평등 달성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이슈 페이지 등을 발간하고 있다고 말함.

- 모로코는 성평등 달성을 위한 지역별, 문화별 전략수립이 필요하고 수행 경험이 다양하다는 측면에서도 경험의 공유가 중요하다고 언급함.

나. 위기상황이 여성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위기상황이 여성에 미치는 영향) 세계 대공황 이래 가장 심각한 현 경제 위기는 개도국에 더 큰 경제적 타격을 주고 있음. 세계은행은 저소득국의 2/3, 그 중에서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의 3/4에서 빈곤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2009년에 1억명 이상의 인구가 식량위기를 겪을 것으로 전망함. 또한, 보건분야를 비롯한 인간개발 관련 MDG 달성이 불투명해지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는 MDG 전체 목표의 지표 달성을 하지 못할 것으로 분석함. 특히, 금번 위기는 소액금융 축소, 해외송금 저하 등으로 인해 MDG 3번 목표의 달성에 지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바,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전략수립이 절실함을 피력함.

(성 인지적 위기상황 대응전략) 현 위기상황이 취약그룹인 여성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하여 여러 공여국과 공여기관은 위기상황을 성 인지적인 관점에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있음.

- 세계은행은 위기가 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정책과제 및 프로그램 수립 시 예측, 통합하는 전략이 필요함. 그 일환으로 여성 문제를 접목한 고용창출 프로그램 수립, 여성의 인적자원개발을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사회안전망 프로그램 개발 등의 방안을 제시함.
- 영국은 현 위기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젠더 정책 및 공약사항을 재조정함. 금년도에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에 50만 파운드의 재원을 추가적으로 배분하여 기존 사회안전 장치를 강화하고, 위기상황에 대한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UN 기구와 협력하여 긴급대응 프로그램을 지원함. 아울러, 위기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정책연구 활동을 강화함.
- 스웨덴은 여성의 경제역량 강화를 인권과 사회정의측면에서 접근하면서 금융위기 대응방안에 젠더 전담반을 설치하여 경제적 주체로서 여성의 인적자원개발 및 역량을 강화하고, 금융시스템의 성 주류화와 여성의 동등한 재산권 확대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사무국은 단기적 긴급대응과 더불어 성평등 도모와 여성권한강화를 위한 중장기적 투자가 병행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였고, 회원국은 과거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고 공유하는 것의 중요성에 공감하였음.

다. 수원국 시스템의 성 인지적 활용 전략

(공공재정관리 개혁과 성 인지 예산) 원조효과작업반(WP-EFF)은 파리선언의 2010년 달성목표치 가운데 수원국의 공공재정관리(Public Finance Management) 시스템의 활용이 목표치인 80%의 절반 정도(45%)만 달성될 것으로 예측하면서 동 부문에 대한 지원 강화를 촉구함. 회원국은 작업반의 수원국 시스템 활용 클러스터(Cluster B)의 활동 중 특히 공공재정관리 강화의 중요성에 공감하였고, 공공서비스의 균등한 분배와 접근성을 향상하고 국가정책과 프로그램의 성 주류화를 위한 방안으로 성 인지 예산의 확대의 필요함을 강조하고 성 인지 예산의 현안과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함.

- UN 여성지위위원회(CSW)는 재원조달은 성평등 달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도구이며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재정관리의 전반적인 재조정이 필요함을 언급함. 한편, 2005년 성 인지 예산 제도를 도입한 가나는 성 인지 예산제도가 부처간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개선하고 굿거버넌스 역량강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함.
- 남아공은 성 인지 예산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부처 간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일본은 성 인지 예산의 성과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동시에 제도의 실행과정에서 주인의식과 동기부여가 요구된다고 말함. 탄자니아는 성 인지 예산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 기 실행 중인 국가와 도입단계 국가 간의 남남협력의 중요성을 피력함.

(성별분리통계 및 수원국 통계역량 강화의 필요성) 회원국은 공공재정관리 개선과 수원국 시스템 활용을 통해 성평등 증진과 여성권한강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성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통계적 수치를 확보하여 정책발전과정을 추적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여성과 남성을 분리하여 통계를 집계하는 성별분리통계의 구축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함을 강조함.

- 결과중심의 정책수립과 효율적 재원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개도국의 통계역량을 강화할 목적으로 1999년 설립된 OECD 산하기구인 PARIS 21(Partnership in Statistics for Development in the 21st Century)은 성별분리통계 구축 역량 강화라는 양적 개선뿐만 아니라 통계수치에 영향을 미치는 젠더 요소(gender-based factors) 분석 강화라는 질적 개선도 필요함을 언급함.
- 아울러, 중장기 개발전략을 수립하는 초기 단계의 개도국일 경우, 성별분리통계는 개발전략 수립시 성 인지적 관점을 적용하는 데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강조함.

(집행수준별 차별적 전략 도입) 회원국은 수원국 시스템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개발원조사업의 집행수준별 차별적인 전략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집행수준을 양·다자 공여기관수준, 국가수준, GENDERNET 수준으로 구분하여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함.

- (공여기관 수준) 스웨덴은 모든 공공재정관리 개선 프로그램에 성 인지적 관점 도입을 의무화

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필리핀은 성 분석(gender analysis)의 양적·질적 강화가 중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함.

- (국가 수준) 아일랜드는 젠더 이슈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개발협력파트너와 동 이슈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설득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파트너들이 이해하기 쉽고 수용가능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피력함. 예를 들어, 재원확대를 위해 재정부와 협력할 때는 예산 부문의 언어에 젠더를 접목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영국, 스웨덴, 한국 대표단 측은 성별분리통계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역설하고 통계수치의 질적 분석의 병행을 강조함.
- (GENDERNET 수준) 네덜란드는 GENDERNET이 각국과 공여기관의 개발경험 공유의 확산 노력을 더욱 기울일 것을 주문함. 한국 대표단과 영국은 국제 합동연구를 주관하여 개발협력파트너간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전파하는 것도 의미 있음을 피력함.

라. 성평등 및 여성권한강화 지표 개선과제

개발협력에서의 성평등 및 여성권한강화에 대한 상호책임성이 높아짐에 따라 구체적 성과를 측정하고 모니터링하는 지표로서 MDG, UNDP 인간개발지수(HDI)를 조정한 GDI(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와 여성의 경제적, 정치적 지위를 측정하는 GEM(Gender Empowerment Measure) 등이 활용되고 있음. UNDP는 성 인지적 기초서비스 측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OECD 개발센터(Development Center)는 사회적 기반(social institution)에 기초한 SIGI(Social Institution and Gender Index) 지표를 제안함.

- 일본은 각국의 다양한 환경과 조건을 감안 국별 비교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모로코는 문화다양성, 오스트리아는 통계의 질적 분석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등 회원국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됨.

마. 제 4차 DAC 고위급회담(HLF) 기여방안 제안

한국 대표단은 이번이 GENDERNET 회의 첫 참석으로 개발원조에서의 성평등 정책협의체의 일원이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향후 한국이 건설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에 기대를 표명함. 한국 대표단은 신흥공여국이자 예비 DAC 회원국으로서 개발원조에서의 성평등을 도모하기 위한 GENDERNET의 역할과 노력을 지지하며 향후 긴밀하게 협조할 것임을 밝힘.

한국 대표단은 GENDERNET이 2006년 나이로비, 2007년 더블린, 2008년 런던 등에서 다양한 워크숍과 컨퍼런스 등을 개최하며 개발원조파트너들이 성평등 이슈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경험을 교

환하고 공유하면서 성평등 증진을 통해 원조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제 3차 DAC 고위급회담에서 성평등을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핵심적인 도구이자 목표로서 통합시킨 것에 대해 매우 건설적이고 진일보적인 성과라고 평가함.

한국은 제4차 고위급회담 개최국으로서 한국 대표단은 지난 고위급회의시 성평등 이슈가 주요 개발 원조 의제로서 부각되었다면, 제4차 회의에서는 원조효과성 제고의 차원에서 보다 심도깊고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GENDERNET의 지속적인 노력을 요청함.

사무국은 한국 대표단의 지지와 평가가 매우 고무적이고, 금번 한국 대표단이 제안한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성평등이 원조효과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함.

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자연보존을 위한 국제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은 기후변화가 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 전략수립 및 의사결정에 여성이 참여해야 함을 주장함. 리우협약 가운데 기후변화협약은 여성의 참여를 규정하지 않아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기후변화 재해로 인한 사망 중 여성의 사망은 남성의 14배이고 높은 사망률은 여성의 조혼을 유도함으로써 여성 교육의 기회를 놓치게 하고 식량부족은 여성의 영양실조를 유발함. 반면에 여성들은 기후변화의 문제에 대응할 지식과 능력을 일상적 경험을 통해 갖추고 있음. 이처럼 여성들은 기후변화의 희생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를 극복하는 주체가 될 수 있음.

이러한 이유로 인해 기후변화와 젠더문제를 연결할 필요가 대두되며 이는 적응(adaptation), 완화(mitigation), 소비와 재정관리의 각각의 차원에서 통합되고 국제적인 정책활동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사. GENDERNET, UN 및 관련 국제기구 활동 현황 및 계획

UN은 조직의 정책 일관성과 접근성, 투명성, 파트너십, 정부/비정부기구 협력, 국가차원 전략을 강조하고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유엔 산하 여성관련 4개 기구(UNIFEM, Instraw, DAW, OSAGI)의 통합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임. 통합의 방향은 4가지로 논의되고 있는 바, 현 상태 유지, 신규 부서(department)의 설립, 신규 프로그램의 수립, 혹은 새로운 형태의 통합(hybrid composite) 중

의 하나가 될 것임. 회원국들은 UN이 국가적 차원의 목표를 강화하고 규범적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며 강한 추진동력을 제공할 것을 희망하고 있음.

UNIFEM에서는 파리선언 중 성평등에 관한 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특히, 성평등 기금(gender equality fund)을 수립하여 차별과 빈곤 감소를 통한 베이징+10, MDG+5, 파리선언과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진전을 도모함. 이 기금은 여성의 경제 및 정치 권한강화를 지원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함.

유엔경제사회위원회(ECOSOC)는 주요 회의의 후속 회의를 담당하고 있으며 MDG3가 중요한 현안임. 이 중 교육, 고용, 참여가 주요 안건이며 개별 MDG를 전체 MDG와 연결시키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함. 2010년에는 7월 유엔 개발협력포럼(development cooperation forum)에서는 장관급 정기회의가 열릴 예정이며 MDG와 성평등에 관한 검토가 있을 것임.

3. 종합평가

우리나라의 2010년 DAC 가입을 앞두고, 신규 회원국으로서 DAC 네트워크 활동의 참여와 적극적인 기여가 기대되는 시점에서 금번 GENDERNET 회의 참여는 개발원조에서의 성평등 이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관련 DAC 규범과 지침에 부합하는 적절한 정책과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음.

특히, GENDERNET 회의는 국가 공여기관, 국제기구, 시민단체 등 여러 개발원조파트너의 성평등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현안 뿐만 아니라 중장기 의제 및 과제를 토의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중요한 정책대화 참여의 기회가 되므로 향후 관련 사업담당자, 사업수행자 및 전문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공조가 요구됨.

이번 회의에서는 성평등 달성을 통한 원조효과 제고 방안으로 성인지예산, 성인지통계, 성분석 등 여성정책 도구의 중요성이 재강조되었음. 또한 기후변화, 경제위기 등 새로운 의제를 통합하고 대응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음. 이에 따라 여성부, 여성정책연구기관, 여성단체 등의 국내 정책네트워크를 강화하여 한국 개발원조에 성 인지적 관점을 통합하고, 관련 분야 정책연구활동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성평등 달성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국내 관련 분야 전문가 풀 확대가 매우 중요함.

〈첨부〉

대표단 발언문

We are very happy to attend the Gendernet meeting this week. It is our first time to be here and we believe this will be a very meaningful start to get involved in this policy community on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As an emerging donor and prospective DAC member, Korea supports Gendernet's efforts to promote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in the context of aid effectiveness and is willing to work in close collaboration with other development partners in implementing the Paris Declaration and the Accra Agenda for Action.

Gendernet's contribution to the 3rd HLF last year greatly inspires us and presents precious opportunities to reflect further on the next steps. Especially we think it very substantial for Gendernet to bring the issue of gender equality to the center of the aid effectiveness and make the linkages in between and to gather policy makers, practitioners and partners together to make this issue relevant through workshops and conferences.

Again, we are much impressed by Gendernet's work to prepare platforms and arenas that gather relevant stakeholders regarding gender equality issues together and build up agendas of essential importance for the 3rd HLF. At this forum, development partners acknowledged that gender quality is a key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Paris Declaration and that the Paris Declaration can be a very effective instrument to advance gender equality in development aid at the same time. Korea much appreciates Gendernet's constructive contribution.

As a hosting country of the 4th HLF, Korea would like continued efforts of Gendernet for the forum to make the issue of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not only kept relevant but also dealt with more in depth. We are hoping that the 4th HLF shall be a platform to further discuss, more in a detailed and concrete manner, on these issues we are discussing today in terms of responding to crisis, use of country system and so on in the context of aid effectiveness.

Especially Korea is much interested in Gendernet's collaboration with other DAC Networks and development partners to increase the aid effectiveness. In this regard,

we are expecting the 4th HLF can function as a hinge to make the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among these partners more effective and connective to elaborate on the issue of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Thank you. /END/